

건축, 사람과 자연을 향하다

Architecture for humans and nature



금동선 | Keum, Dong-sun
법무부 운영지원과장

약력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법무부 시설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역임

유럽 여행을 하다보면 그 도시에서 풍기는 멋과 향기에 감탄하게 되는데, 그 멋과 향기의 원천은 노트르담 성당, 루브르 박물관 등 유럽풍의 건축물입니다. 그만큼 건축은 도시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도 궁궐, 전통사찰 등 훌륭한 고건축(古建築)을 가지고 있으며,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사찰의 단아하고 섬세한 처마에 마음을 빼앗기고 토담 길을 따라 거닐며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통 건축물을 제외하면 우리만의 특징적인 건축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고민을 반영한 건축물이 나타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한때 법무부의 법무시설조성 사업을 총괄하는 시설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우리 건축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사람의 삶과 밀접한 건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공간을 구획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까지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건축이라 생각합니다. 건축물을 부수고 세우는 단순한 작업으로 보기보다는 전체를 보고 인간 삶의 동선을 파악해야 사람이 살기 좋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여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은 인간 중심 건축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둘째, 주변 환경과 끊임없는 교감이 이루어지는 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건축물의 나열은 시선을 어지럽게 할 뿐입니다. 만약 유럽의 도시가 자연과 어울리는 풍광을 갖지 않고 아파트와 고층 건물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뉴욕과 홍콩의 고층건물이 천편일률적인 모습이었다면 여행자를 볼라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연과 도시에 어울리는 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공공건축에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공공기관은 입지선정 단계부터 민원이 제기

되어 난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용시설인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국민의 이용 편리성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정기관 청사의 미관을 개선하고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과 공유하는 등 일련의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법무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적인 건축이 필요합니다. 옥상녹화는 친환경 건축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를 통해서 도심 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여름에는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며 겨울에는 보온효과도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건축이 결국은 탄소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도 탄소발생 억제 시공법 마련, 태양열·태양광이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등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듯이 건축물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을 때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문화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가 유럽의 건축물, 심지어 거리의 벤치 등에서 느끼는 특별한 분위기를 외국인도 우리 도시, 우리 거리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개개의 건축물을 만들고 도시 전체의 디자인을 설계하는 건축사, 협력 설계자, 건축 관련 공직자 등 전문가에게 필요한 것은 건축을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 문화와 예술로 보는 통섭의 안목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건축 전문가들은 사람을 생각하는 인문학자도 되어야 하고, 과학자와 예술가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권유가 없어도 건축물을 바라보며 편안하고 심오한 향기에 젖어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자취로 남아 회자(膾炙)될 수 있는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여 봅니다. ■